

## 예레미야의 70년 예언과 성취 : BC 590년 ~520년<sup>1)</sup>

다니엘 9장에서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해 셋째 환상을 받는다. 7장은 일차적으로 로마 치하의 이스라엘의 미래와 관계되어 있고 8장은 그리스 치하의 이스라엘의 미래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본 장은 고레스 원년부터 율리우스 시저 원년까지 이스라엘의 미래의 요약과 관계되어 있다. 이 장은 연대가 메대인 다리오 원년인데, 즉 5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대로 그가 바빌론의 왕이 '되었던' 해이다(주전 574년). 다니엘은 이번 장의 1절에서 셋째 환상의 상황을 말해준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더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칠십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단 9:1-2)

다니엘은 그 사건이 어떻게 바빌론 포로의 그 지속될 기간과 연관되어 있는지 알고 연구했다.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가 70년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그 대답을 찾았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칠십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칠십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히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렘 25:11-13)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의 출발점 (terminus a quo)은 예언자 에스겔에게 그 일자를 받아먹으라고 말씀하는 곳에 나오는데, “제 구년 시월 십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겔 24:1-2).” 히브리 일자로 여호야긴의 포로 제 9년의 테벳 (Tebet)월 10일이고, 그레고리안 일자로 **주전 590년 12월 21일 일요일**과 동등하다. 에스겔이 이 일자를 기억하기가 수월했는데, 불행하게도 같은 날에 그의 아내가 죽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겔 24:18).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 그리고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날이 70년 시기의 출발점을 표시한다.

70년 시간의 틀의 종결점(terminus ad quem)은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다른 날을 표시하라고 말씀하셨던 날인데, 바빌론의 포로가 끝났기 때문이다.

다리오왕 이년 구월 이십사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썼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

1) 유진 폴스티히, [다니엘서와 역사의 조화], 성경과학연구소 2020, 9장 pp101-103 참고

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와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 때에는 이십 고르 곡식더미에 이른즉 십 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오십 고르를 길으려 이른즉 이십 고르뿐이었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구월 이십사일 곧 여호와와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 2:10-19)

학개에 나오는 이 일자가 70년 바벨론 포로의 끝을 표시한다. 히브리 일자로 페르시아인 다리오의 제 2년 키슬레브월 24일이고, **그레고리안 일자로 주전 520년 12월 10일 일요일**이다. 알 수 있는 대로, 이 두 성경적 사건들 사이가 70년이다.

이 70년 기간은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다는 게 무엇인가를 정의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여호와를 위한 집이 없었다. 그리고 다니엘은 주전 599년부터 주전 574년까지 20년동안 포로로 있었다. 그렇지만 바벨론 포로 제 70년은 다니엘이 그의 셋째 환상을 받았을 때 그 15년째였고 아직 55년이 남았었다.



다니엘은 특히 70주의 끝에 관한 상황에 대해 관심을 두었다. 그것이 그가 기도와 금식으로 얼굴을 돌린 이유이다. 다음 구절들에 다니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다니엘이 예언적 이해를 구하여 응답을 받았던 기도이다.

### 민족적 죄에 대한 다니엘의 고백과 회개의 기도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 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데 있는 자나 먼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와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단 9:3-15)

다니엘은 성전의 재건을 포함하여 그의 백성의 구원을 소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다. 이 기도를 느헤미야 1:5 이하와 9:6 이하에 있는 것들과 유사하다. 다니엘은 금식할 뿐 아니라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금식했다. 보통 기도에 수반되는 금식은 다니엘의 진지한 소원을 가리키는 한편 베옷과 재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겸손을 보여준다.

기도하면서 다니엘은 마지막 구속이 오는 것을 방해한다고 보였던 그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 고백하였다. 다니엘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자비로우신 언약의 하나님께 호소한다. 오늘날 5-6절 전체나 일부분이 유대의 신년이나 속죄일을 앞두고 고서나 그 동안에 회당에서 참회의 기도로 인용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기도는 민족적 죄의 아름다운 고백이다.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가 범죄하였다” (단 9:5)고 다니엘은 선언한다. 주님께서는 의를 소유하고 계시지만, 그의 백성은 수치가 있고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 백성이 반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인정한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그의 율법대로 행하지도 않았으며, 예언자들에게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당하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그의 말씀을 확정하셨다 (레 26:14 이하와 신 28:15 이하 참조). 이것을 다니엘은 인정하는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단 9:13). 주님께서서는 참되시고 신실하셔서 토라에 포함되어 있던 신적 규례를 수행하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은 느부갓네살의 칙령과 메대인 다리오의 공포를 통해 동방 세계에 이미 퍼져있었다. 하나님이 의와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선하심을 검토하는 동안, 이 기도의 첫 부분에서 다니엘의 결론은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단 9:15).”

### 용서와 회복을 위한 다니엘의 간구

이스라엘의 죄를 인식하고 그것들을 고백하면서, 다니엘은 이제 주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한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기록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며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취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바 됨이니 이다. (단 9:16-19)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의 이름으로 부르셨던 예루살렘 성과 황폐해 있는 성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라고 구한다. 예언자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탄원하고, 이스라엘이 받아 마땅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전에 하시던 대로 해주시라고 간청한다. 다니엘은 주님께서 호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시기를 원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의 성소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이방인들이 무어라고 말할 것인가? 언약과 약속된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예루살렘과 성전이 황폐하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바 됨이니 이다 (단 9:19).” 이 지점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출현으로 다니엘의 기도는 중단된다.